Journal of Convergence for Information Technology
Vol. 9. No. 9, pp. 108-116, 2019
e-ISSN 2586-4440
DOI : https://doi.org/10.22156/CS4SMB.2019.9.9.108

간호대학생의 다문화수용성, 공감능력이 세계시민의식에 미치는 융합적 영향

고진희[1], 강명주[2*], 김혜진[3]
[1]춘해보건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2]청암대학교 간호학과 겸임교수, [3]경성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The Convergent Influence of MultiCultural Acceptability, Empathy and Global Citizenship in Nursing Students

Jin-Hee Ko[1], Myung-Ju Kang[2*], Hye-Jin Kim[3]
[1]Assistant Professor, Department of Nursing, Choonhae College of Health Sciences
[2]Adjunct Professor, Department of Nursing, Cheongam College
[3]Assistant Professor, Department of Nursing Science, Kyungsung University

요 약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다문화수용성, 공감능력, 세계시민의식 간의 관계를 확인하고 세계시민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자료 수집은 B시, U시와 S시에 소재한 3, 4학년에 재학 중인 간호대학생 187명을 대상으로 진행하였으며, 수집된 자료는 t-검정, ANOVA, Pearson 상관계수 및 단계적 다중회귀분석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세계시민의식은 다문화수용성(r=.48, p<.001), 공감능력(r=.58, p<.001)과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간호대학생의 세계시민의식에 공감능력, 다문화수용성 순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쳤고, 이들 변수들의 설명력은 40%로 나타났다. 본 연구를 토대로 글로벌 역량이 중요시되고 있는 간호교육 현장에서 세계시민의식 향상을 위한 지속적이고 실천적인 프로그램 및 다양한 학습방법의 개발과 적용이 요구된다.

주제어 : 간호대학생, 다문화수용성, 공감능력, 세계시민의식, 융합

Abstract This study is a descriptive survey study intended to analyze the relationship between multicultural acceptability, empathy, and global citizenship of nursing students and identify the factors influencing global citizenship. The data was collected targeting 187 nursing students at universities located in the cities of B, U, and S. The collected data was analyzed using t-test, ANOVA,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s, and stepwise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The results were as follows: global citizenship of nursing students was positively correlated with multicultural acceptability and empathy. Factors influencing the level of global citizenship were empathy, multicultural acceptability, which together explained 40.0% of the total variance in global citizenship. Consequently, this study raises the need for the development and application of steady practical programs and various learning methods for the enhancement of global citizenship, which is required in the fields of nursing education where global competence is considered to be important.

Key Words : Nursing Student, Multicultural Acceptability, Empathy, Global Citizenship, Convergence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국제사회는 급격한 보건의료 환경의 발달과 세계화(globalization) 추세로 인해 국제 교류가 활발해졌을 뿐 아니라 국가 간 경계를 넘어서는 건강 문제도 확대되고 있다[1]. 이에 각 국가는 전 지구적 건강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초국가적인 공동대응 전략의 마련과 함께 지속가능한 상호협력의 중요성을 제기하였다[2]. 특히 건강전문가들은 국제보건 이해와 다문화 대상자의 보편적 건강보

*Corresponding Author : Myung-Ju Kang(qualityupmjk@naver.com)
Received August 2, 2019 Revised August 22, 2019
Accepted September 20, 2019 Published September 28, 2019

장을 위해 세계시민의 기본적 권리에 대한 지식, 기술, 태도의 능력인 세계시민의식을 갖출 필요가 있다[3,4].

세계시민의식이란 세계화된 사회에서 지역과 국가 정체성을 넘어 사회정의와 다양성을 존중하고, 인류 공동의 가치를 향상하는 데 필요한 역량을 의미한다[5]. 이러한 가치 실현을 위해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WHO])는 글로벌 차원의 실무역량을 갖춘 간호사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강조하였다[6]. 또한, 최근의 간호 교육목표에서도 국제적인 감각과 역량을 갖춘 인재 양성이 두드러지고 있어 간호대학생이 졸업 후 국내외에서 다양한 세계인을 만나 보건의료 전문인으로서의 역량을 발휘하도록 교육적 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주요한 시대적 과제라 할 수 있다.

한편, 2018년 국내 체류 외국인은 총인구 대비 4.6%인 236만 명으로 역대 최고치였으며[7], 외국인의 국내 의료기관 이용률은 40만 명에 달하는[8] 등 국내 보건의료 환경에도 문화적 다양성과 그에 따른 간호역량의 필요성은 더욱 뚜렷해지고 있다. 이러한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국내 이주민을 대상으로 한 질적 연구에서[9] 이주민들은 보건의료 서비스 과정에서 의사소통 문제, 정보 부족, 미흡한 진료 서비스로 인해 불편함을 겪으며 자신들에 대한 의료진의 이해와 수용이 요구된다고 하였으며, 또한 이민자와 간호사의 의사소통 경험을 파악한 연구에서[10] 간호사들은 이민자와의 의사소통과 상호작용의 어려움으로 대상자의 요구에 맞는 간호를 충분히 제공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고하며 간호사의 다문화에 대한 이해와 수용적 역량을 높이는 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결과적으로 간호사의 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이해와 수용적 태도는 환자 치유와 간호사의 세계시민적 정체성에 중요한 요인이며, 빠르게 급변하는 국제보건 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전략이 되므로 지속해서 고려돼야 할 필요가 있다[9,10].

다문화수용성은 다인종·다문화 배경을 가진 대상자를 편견 없이 사회 구성원으로 받아들이고 조화로운 공존을 위해 노력하고 협력하는 태도를 의미한다[11]. 간호대학생들은 다문화 및 세계화되어가는 국제사회에서 보건의료 서비스의 핵심인력으로 참여하게 될 중요한 인적 자원으로[12], 간호 학부생 때부터 높은 수준의 다문화수용성을 함양할 필요가 있다[13]. 간호대학생들의 다문화수용성은 다문화 환경에 대처하는 자신감을 향상해주고[14], 효과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능력[13]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어 간호 교육과정에서의 필요성이 제시되고 있다. 이상과 같이 다문화수용성은 타 문화에 대한 공존과 수용의 개념이고, 세계시민의식은 타 국가에 대한 관심과 공감의 태도로, 다문화수용성과 세계시민의식은 밀접한 관련성을 가질 것으로 예측되므로 두 변인 간의 관련성을 확인하는 것은 매우 의미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공감은 다른 사람의 감정과 자신의 감정을 동일하게 이해하고 느끼는 것을 의미한다[15]. Nussbaum[16]은 국제사회에서 발생하는 전 지구적 문제해결을 위해 세계시민이 갖추어야 할 핵심역량으로 공감하는 태도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즉, 인류공동의 이해관계와 특성을 공유하고 공감하는 시민으로서의 정체성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이다[17]. 간호대학생의 공감은 대상자의 경험과 감정을 이해하는 능력[18]과 이타행동[19]을 향상시켜주며, 효과적인 의사소통[20]과, 적절한 자아통제[21]를 활용하여 문제해결을 도와주는[22] 변인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공감능력이 세계시민의식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측되지만 이를 실증적으로 검증한 연구는 수행된 바 없다.

지금까지 국내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수행된 세계시민의식 관련 연구들을 살펴보면 세계시민의식은 셀프리더십, 국제보건역량과 관련되어 있으며[3,23], 문화적 공감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었으나[24] 세계시민의식과 관련된 연구는 양적으로 매우 부족한 실정이었다. 따라서 간호대학생의 다문화수용성, 공감능력과 세계시민의식 세 변수와의 관계를 살펴보는 것은 미래사회에 대비하는 간호대학생의 국제적 역량 강화의 관점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간호대학생의 다문화수용성, 공감능력, 세계시민의식과의 관계를 확인하고 세계시민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함으로써 간호대학생의 세계시민의식 증진을 위한 중재 전략에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되었다.

1.2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다문화수용성, 공감능력 및 세계시민의식 간의 관계를 확인하고 세계시민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는데 있으며,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을 파악한다.

둘째,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세계시민의식의 차이를 파악한다.

셋째, 대상자의 세계시민의식 정도를 파악한다.
넷째, 대상자의 다문화수용성, 공감능력 및 세계시민의식 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다섯째, 대상자의 세계시민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융합적 요인을 파악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설계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다문화수용성, 공감능력 및 세계시민의식 간의 상관관계와 세계시민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융합적 영향요인을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2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자는 B시, U시와 S시에 소재한 대학 3개교의 대학생 중 간호학과에 재학 중인 3, 4학년으로 본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연구 참여에 서면으로 동의한 학생 200명을 편의모집 하였다. 연구 대상지 수는 G-power 3.1.9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적정 표본 수를 산출하였다. 다중회귀분석을 위해 유의수준(α)=.05, 검정력(1-β)=.95, 효과크기=.15, 예측변수 9개를 설정하여 투입했을 때 최소 표본 수는 166명으로 산출되었고, 탈락률 20%를 고려하여 2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배부된 설문지 중 195부가 회수(회수율=97.5%)되었으며 응답 내용이 불충분한 설문지 8부를 제외하고 최종 187부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2.3 연구도구

2.3.1 세계시민의식

세계시민의식은 Yoon[25]이 개발한 도구로 측정하였다. 본 도구는 총 46문항이며 지식(13문항), 스킬(9문항), 태도(13문항), 실천의지(11문항)의 4개 하위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응답범주는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까지의 Likert 척도로 구성되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세계시민의식이 높음을 의미한다. 개발 당시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α는 .72이었고,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는 .93이었다.

2.3.2 다문화수용성

다문화수용성은 An 등[26]이 개정한 표준화된 한국형 다문화수용성 척도인 KMCI(Korean Multiculturalism Inventory)를 Kim[12]이 수정·보완한 도구로 측정하였다. 본 도구는 총 35문항이며 다양성(15문항), 관계성(11문항), 보편성(9문항)의 3개 하위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응답범주는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까지의 Likert 척도로 구성되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다문화수용성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개발 당시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α는 .94이었고,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는 .93이었다.

2.3.3 공감능력

공감능력은 Davis[27]가 개발한 대인관계반응지수(Interpersonal Reactivity Index, IRI)를 Park[28]이 번안한 도구로 측정하였다. 본 도구는 총 28문항이며 관점취하기(7문항), 상상하기(7문항), 공감적관심(7문항), 개인적고통(7문항)의 4개 하위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응답범주는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까지의 Likert 척도로 구성되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공감능력이 높음을 의미한다. 개발 당시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α는 하위영역별로 .70~.78이었고,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는 .79이었다.

2.4 자료수집 및 윤리적 고려

자료수집은 2019년 4월 8일부터 4월 29일이었다. 연구자 3인이 직접 3개교의 간호학과장에게 연구의 목적과 절차에 대한 연구계획서 제출과 설명을 하고 연구진행에 대한 허락을 받은 후, 간호학과 게시판에 연구의 목적과 절차에 관한 내용을 게시하여 대상자 선정 기준에 맞는 연구 참여자를 모집하였다. 자발적으로 연구 참여에 동의한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연구의 목적과 절차, 비밀보장, 자료의 익명성을 설명하였으며, 응답한 설문자료는 연구목적으로만 사용한다는 것과 원할 경우 언제든지 자율적으로 연구 참여 철회가 가능하며 그로 인한 불이익은 없다는 내용의 동의서를 받음으로써 대상자의 윤리적 측면을 고려하였다. 최종적으로 연구자의 설명에 대한 이해를 확인한 후 설문지 작성법을 설명하고 작성하도록 하였다. 설문지 응답 소요 시간은 약 10~20분 정도였으며, 작성된 설문지는 회수전용 봉투에 넣어 밀봉하고 연구자가 직접 일괄 수거하였다. 설문 응답에 대한 회수율과 충실성을 높이기 위하여 감사의 의미로 모든 대상자에게 소정의 선물을 제공하였다.

2.5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WIN 21.0 Program을 이용하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세계시민의식의 정도는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 등의 기술통계로 분석하였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세계시민의식 차이는 Independent t-test, oneway ANOVA로 분석하였고, 사후검증은 Scheffé test를 이용하였다. 대상자의 세계시민의식과 주요 변수 간의 상관관계는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s로 분석을 하였으며, 세계시민의식에 영향을 주는 변인들의 영향력을 분석하기 위하여 단계적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3. 연구결과

3.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성별은 남자 20명(10.7%), 여자 167명(89.3)이었다. 연령은 25세 미만이 178명(95.2%), 25세 이상이 9명(4.8%)이었다. 학년은 3학년이 177명(94.7%) 4학년이 10명(5.3%)이었으며, 학업수준은 상위권이 32명(17.1%), 중위권이 139(74.3%), 하위권이 16명(8.6%)이었다. 종교는 '있다'가 60명(32.1%), '없다'가 127명(67.9%)이었고 외국인 친구는 '있다'가 39명(20.9%), '없다'가 148명(79.1%)이었다. 해외여행 경험은 '있다'가 144명(77.0%), '없다'가 43명(23.0%)이었다.

Table 1. Global Citizenship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N=187)

Characteristics	Variables	n(%)	Global Citizenship M±SD	t or F (*p*)
Gender	Male	20(10.7)	3.72±0.53	2.02 (.045)
	Female	167(89.3)	3.91±0.38	
Age(year)	<25	178(95.2)	3.90±0.40	0.45 (.653)
	≥25	9(4.8)	3.83±0.42	
Grade	3	177(94.7)	3.90±0.40	0.40 (.693)
	4	10(5.3)	3.84±0.42	
Academic level	High	32(17.1)	4.06±0.42	3.58 (.030) a>b,c
	Medium	139(74.3)	3.86±0.38	
	Low	16(8.6)	3.88±0.49	
Religion	Yes	60(32.1)	3.90±0.35	0.16 (.875)
	No	127(67.9)	3.89±0.42	
Foreign friends	Yes	39(20.9)	4.01±0.42	2.09 (.038)
	No	148(79.1)	3.86±0.39	
Experience of overseas trip	Yes	144(77.0)	3.90±0.39	0.33 (.745)
	No	43(23.0)	3.88±0.45	

3.2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세계시민의식의 차이

Table 1과 같이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세계시민의식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세계시민의식은 성별, 학업수준, 외국인 친구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성별은 여자가 남자보다(t=2.02, *p*=.045), 학업수준은 사후분석결과 상위권이 중·하위권보다(F=3.58 *p*=.030), 외국인 친구가 있는 경우가 없는 경우보다(t=2.09, *p*=.038) 세계시민의식 수준이 높게 나타났다. 일반적 특성 중 연령, 학년, 종교, 해외여행 경험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다.

3.3 대상자의 세계시민의식

대상자의 세계시민의식 정도는 Table 2와 같다. 대상자의 세계시민의식은 5점 만점에 평균 3.89(±0.40)점이었으며 하위요인의 평균점수는 태도 4.20(±0.46)점, 지식 4.19(±0.39)점, 실천의지 3.63(±0.61)점, 스킬 3.54(±0.57)점 순이었다.

Table 2. Degree of Global Citizenship (N=187)

Variables	Mean±SD	Min	Max	range
Knowledge	4.19±0.39	2.92	5.00	1-5
skills	3.54±0.57	1.67	5.00	1-5
attitudes	4.20±0.46	2.92	5.00	1-5
Practice Will	3.63±0.61	1.82	5.00	1-5
total	3.89±0.40	3.07	5.00	1-5

3.4 대상자의 다문화수용성, 공감능력 및 세계시민의식 간의 상관관계

대상자의 다문화수용성, 공감능력 및 세계시민의식과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는 Table 3과 같다. 세계시민의식은 다문화수용성(r=.48, *p*<.001), 공감능력(r=.58, *p*<.001)과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내었으며, 공감능력은 다문화수용성(r=.40, *p*<.001)과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Table 3. Correlations between MultiCultural Acceptability, Empathy, Global Citizenship (N=187)

Variables	MultiCultural Acceptability r (*p*)	Empathy r (*p*)	Global Citizenship r (*p*)
MultiCultural Acceptability	1		
Empathy	.40 (<.001)	1	
Global Citizenship	.48 (<.001)	.58 (<.001)	1

3.5 대상자의 세계시민의식에 미치는 영향요인

대상자의 세계시민의식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단계적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Table 4와 같다. 독립변수는 일반적 특성 중 세계시민의식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 성별(남자 기준), 외국인 친구 여부(무 기준), 학업수준(하 기준)과 상관분석 결과 유의한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 다문화수용성, 공감능력 등 5개를 투입하여 단계선택법을 이용하여 분석을 시행하였다. 분석 전 오차항 간 자기 상관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실시한 Durbin-Watson값은 2.042로 오차항 간 자기 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오차항의 분포를 정규분포로 가정할 수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실시한 표준화 잔차 값은 모두 ±3 이내의 값으로 나타나 정규분포로 가정 할 수 있었다. 공차한계(Tolerance)는 각각 .839로 .10 이상이었으며, 분산팽창인자(VIF)도 각각 1.191로 기준치 10 미만 값으로 나타나 독립변수들 사이에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단계적 다중회귀분석결과 세계시민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공감능력(β=.46, p<.001), 다문화수용성(β=.29, p<.001) 순으로 나타났다. 즉 공감능력이 높을수록, 다문화수용성이 높을수록 세계시민의식이 높아진다고 할 수 있다. 공감능력, 다문화수용성에 의해 설명되는 설명력은 40%이었다.(F=63.99, p<.001, R^2=.41, Adj. R^2=.40). 성별, 외국인 친구, 학업수준은 유의한 영향요인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4. Factors Influencing Global Citizenship

(N=187)

Variables	B	SE	β	t	p
(Constant)	1.16	.25	-	4.52	<.001
MultiCultural Acceptability	.24	.05	.29	4.77	<.001
Empathy	.53	.07	.46	7.49	<.001
R^2=.41, Adj. R^2=.40, F= 63.99, p<.001					

4. 논의

국제적으로 상호의존이 긴밀한 시대에 간호대학생의 세계시민의식을 함양할 수 있는 요인들을 살펴보는 연구는 미래의 예비간호사인 간호대학생의 국제적 역량 강화 관점에서 매우 중요한 주제라 할 수 있다. 의식과 태도의 변화는 단기간에 쉽게 변화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세계시민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체계적으로 탐색해 나갈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세계시민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고 간호대학생의 세계시민의식 증진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시도되었다. 본 연구 결과의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간호대학생의 세계시민의식은 5점 만점에 평균 3.89점으로 중간보다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세계시민의식과 동일한 도구로 측정한 선행연구 결과가 없어 직접 비교는 어렵지만, 유사한 도구를 사용하여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세계시민의식을 측정한 Kim & Han[3]의 연구에서 3.96점, Kwon, Son, Han, Kim & Choi[24]의 연구에서의 3.83점과 유사한 결과였으며, 대학생 300명을 대상으로 한 Lee[29]의 연구에서 3.57점보다 높은 결과를 보였다. 최근 간호학에서는 간호교육 프로그램 학습 성과로 글로벌 간호 인재 양성을 강조하고 있는데[23], 본 연구결과는 이러한 간호 교육과정에서 이루어진 글로벌 교육의 효과로 추측할 수 있다. 하지만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세계시민의식 연구가 매우 부족한 상황이므로, 후속연구를 통해 간호대학생의 세계시민의식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세계시민의식의 하위영역별 평균 점수는 태도(4.20점), 지식(4.19점), 실천의지(3.63점), 기술(3.54점) 순으로 나타났다. 즉 본 연구의 대상자들은 인간의 존엄성과 권리, 타인의 감정과 견해를 존중하는 '태도'와, 사회정의, 상호의존성, 보편성 등을 이해하는 '지식' 수준은 높은 편이었다. 반면 세계적 체제에 대한 공감적 요소인 '실천의지'와 비판적인 사고와 창의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기술'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간호대학에서 시행되고 있는 세계시민의식 교육은 대부분 암기식 교육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으로[30] 사료된다. 세계시민의식은 단순히 전 지구적 관점(global perspective)에서 지식과 정보를 이해하려는 인식-관점적 차원만이 아니라 운명공동체라는 연대의식을 기반으로 행동하고 참여하는 태도를 내포한다[1]. 따라서 간호대학생의 세계시민의식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단순히 지식의 전달을 넘어 전 인류의 복지증진과 존엄성 보장 등의 문제해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실천할 수 있는 훈련 및 기술의 습득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세계시민의식에 유의한 차이를 보인 간호대학생의 일반적 특성은 성별, 학업수준, 외국인 친구 유무였다. 먼저 성별에서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세계시민의식이 높게 나타

났는데 이는 대학생 280명을 대상으로 한 Choi, Son & Park[31]의 연구와 동일한 결과이다. 이러한 결과에 대해 선행연구[31]에서는 타인에 대한 배려, 보살핌, 유대감과 책임을 중시하는 여성 고유의 특성이 세계시민의식에도 영향을 준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다고 하여, 본 연구 결과에서도 동일한 요인으로 작용하였을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또 한편으로 본 연구에서는 남학생이 10.7%, 여학생이 89.3%로 여학생이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었으나, 선행연구[31]에서는 남학생이 46.8%, 여학생이 53.2%로 남녀의 성비가 비교적 대등한 수준으로, 두 연구 간에 남녀 성비의 차이가 있음에도 동일한 결과를 나타내어 후속연구에서는 성별에 따른 세계시민의식의 차이를 확인하는 반복 연구를 통해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학업성적이 상위권인 경우가 중·하위권보다 세계시민의식이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선행연구가 없어 직접 비교에 어려움은 있으나 Shin[32]의 연구에서 중학생 368명을 대상으로 학업성적에 따른 세계시민자질을 분석한 결과 학업 성적이 좋을수록 세계시민자질의 정도가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본 연구결과와 유사한 결과로, 학업 성취도를 높이게 되면 세계시민의식 수준도 높아질 수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대상자의 학업수준은 상위 17.1%, 중위 74.3%, 하위 8.6%로 중위권이 다수인 반면 선행연구[32]에서 대상자의 학업수준은 상위 41.3%, 중위 34.2%, 하위 24.0%로 비교적 대등한 수준으로 나타나 본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는 데는 한계가 있으므로 추후 반복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외국인 친구가 있는 경우가 없는 경우보다 세계시민의식 정도가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연구한 Kim[33]의 연구와 타 전공 대학생을 대상으로 연구한 Kim, Park & Cho[34]의 연구와 동일한 결과로, 간호사의 다문화 지식과 문화적 간호행위가 외국인 친구와의 교류를 통해 증가하였다는 연구결과[35]와 같은 맥락으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간호대학생의 세계시민의식 향상을 위해서 타 문화 대상자에 대한 편견과 고정관념을 극복할 수 있도록 직·간접적인 접촉경험을 적극적으로 제공하는 동시에, 다양한 인종과 문화를 수용하는 태도를 형성시켜 주기 위한 다각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 연령은 세계시민의식에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측정도구가 달라 직접 비교에는 어려움이 있으나, 서울지역 대학생 중 저학년과 고학년 사이에는 세계시민의식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 Kim, Park & Cho[34]의 연구를 지지하는 결과이다.

본 연구에서 간호대학생의 세계시민의식은 다문화수용성 및 공감능력과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까지 이 세 변인 간의 관련성을 검증한 선행연구는 없었는데, 본 연구 결과에서 간호대학생들의 세계시민의식이 높을수록 다문화수용성과 공감능력을 더욱 높이 발휘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추후에도 세계시민의식과 이들 관련변인에 대한 연구가 지속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된다.

본 연구결과 세계시민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공감능력과 다문화수용성이었고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친 요인은 공감능력(β=.46)으로 확인되었다. 세계시민의식은 문화에 대한 공감의 실천으로 공감은 세계시민의식의 실천의지에 근간이 되기 때문에[25] 세계시민의식 촉진에 있어 공감능력은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다. Kwon[36]은 세계적 이슈를 이해하고 해결하기 위한 학습방법으로 공감이라는 정서적 요소를 적용한 결과 문제에 대한 이해 및 태도형성, 문제해결을 위한 행동의지를 고취하는데 있어 더욱더 효과적이라고 보고하여 본 연구 결과를 지지해 주고 있다.

간호대학생은 미래의 보건의료 전문인으로서 건강 불평등 및 보건의료 문제에 대해 인류공동체라는 연대의식을 바탕으로 세계문제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또한 졸업 후 실무현장에 나아가서는 문화적 다양성을 지닌 대상자들을 이해하고 그들의 문화에 맞는 최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본 연구 결과를 토대로 간호대학생의 세계시민의식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실천의지'와 '기술'에 근거한 체험형 교육방법의 활성화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특히 학생들의 적극적인 수업 참여를 모색하는 방법으로 토론, 이주민 접촉, 외국인 자원봉사 활동, 해외봉사 활동 등을 장려하고, 다양한 세계시민교육 실시 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지속가능한 보건의료 전문 인력의 양성에 힘써야 할 것이다. 이처럼 다문화 및 세계시민에 대한 전문지식과 실천에 대한 습득을 간호대학 교과과정과 연계하여 학습하는 것은 간호대학생들의 세계시민의식 강화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 사료된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다문화수용성, 공감능력 및 세

계시민의식 간의 관계를 확인하고, 간호대학생의 세계시민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파악하기 위해 시도되었다. 연구결과 간호대학생의 세계시민의식은 다문화수용성, 공감능력과는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시민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공감능력, 다문화수용성 순이었고 이들 변수의 세계시민성에 대한 설명력은 40%이었다. 결론적으로 간호대학생의 세계시민의식에 다문화수용성, 공감능력이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이들 변수를 기반으로 간호대학생의 세계시민의식 함양을 위한 전략을 개발할 것을 권장한다. 추후 연구를 위한 제언으로는 첫째, 본 연구는 3개 대학교에 재학 중인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대상자를 확대하여 반복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간호대학생의 세계시민의식 증진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그 효과를 검증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대상자 표집에 있어 남녀의 성비, 연령, 학업수준의 계층을 고려하지 못하여 연구 결과를 일반화 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추후 확률표집방법에 따른 체계적인 표집방법을 통한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REFERENCES

[1] H. B. Park & H. S. Cho. (2016). An analysis of research trends on global citizenship education in South Korea. *Korean Journal of Educational Research, 54(2)*, 197-227.

[2] A. R. Goh. (2015). The analysis of effects of a Teacher Training Program for Global citizenship education. *Journal of Education for International Understanding, 10(1)*, 95-134.

[3] Y. S. Kim & M. Y. Han. (2018). Convergence Relationship between Global Citizenship, Self leadership and Global Health Competencies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6(9)*, 347-357.
DOI : 10.14400/JDC.2018.16.9.347

[4] Oxfam Education. (2015). *Education for global citizenship: A guide for schools*. London, England : Oxfam.

[5] S. Reysen & I. K. Miller. (2013). A model of global citizenship: Antecedents and outcomes. *International Journal of Psychology, 48(5)*, 858-870.
DOI : 10.1080/00207594.2012.701749

[6] J. A. Jun & N. H. Lee. (2016). *2016 Major Issues Analysis and Response Strategies*. Seoul :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7] Korea Immigration Service. (2019. 01. 19.). *Status of foreign residents staying in December 2018*. Seoul : Ministry of Justice.

[8] J. W. Seo. (2019. 03. 18). *400,000 foreign patients in 'Medical Korea'*. Meil Economy. https://mk.co.kr

[9] Y. N. Shin, S. Hasegawa & K. J. Choi. (2019). Undocumented Migrants' Health Management and Experience of Health Care Services : Using in-depth Interviews and Grounded Theory. *Multiculture & Peace Institute, 13(1)*, 1-33.

[10] M. J. Choi & S. B. Im. (2011). Communication Experiences between Nurses and Married Immigrant Women during their Children`s Hospitalization. *Korean Academy on Communication in Healthcare, 6(2)*, 133-148.

[11] Y. O. Kim & S. M. Shin. (2019). A Study on the Organization Effectiveness of Multicultural Acceptability of Childcare Teachers' for Convergence Period : The Mediation Effect of Multicultural Capabilities. *Journal of Convergence for Information Technology, 9(2)*, 130-138.
DOI : 10.22156/CS4SMB.2019.9.2.130

[12] S. Y. Kim. (2016). The Impact of Self Efficacy and Multi Culture Experience of College Students Majoring Social Welfare on Acceptance of Multi Culture. *The Journal of Multicultural, 9(2)*, 201-229.

[13] M. J. Chae, J. I. Kim & J. H. Lee. (2015). Effects of a Multicultural Course on the Multicultural Acceptability and Competency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21(3)*, 373-381.
DOI : 10.5977/jkasne.2015.21.3.373

[14] K. H. Kim. (2018). The Effects of Multicultural Openness, Preoccupation, Multicultural Acceptability on Multicultural Efficacy of nursing students. *Korea Academy 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19(8)*, 211-219.
DOI : 10.5762/KAIS.2018.19.8.211

[15] C. R. Rogers. (1975). Empathic : An unappreciated way of being. *The Counseling Psychologist, 5(2)*, 2-10.
DOI : 10.1177/001100007500500202

[16] M. C. Nussbaum. (1999). *Cultivating humanity: A classical defence of reform in liberal education*. Cambridge, Massachusetts and London : Harvard University Press.

[17] Y. J. Lee. (2016). The Necessity Of Practical Solidarity And We-intention To Based On Global Citizenship

Education. *Journal of Social Science, 27(1)*, 225-245.

[18] M. O. Kang. (2015). A Study on Relationship among Self-awareness, Other-awareness and Empathy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Philosophical History, 47*, 207-238.

[19] J. H. Nam & H. S. Park. (2018). The Impacts of Perceived Stress and Empathy Ability on Altruistic Behavior of Freshma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19(11)*, 653-661.
DOI : 10.5762/KAIS.2018.19.11.653

[20] J. A. Park. (2018). Level of empathy and influencing factors of empathy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18(22)*, 781-798.

[21] M. O. Chae. (2016). Ego resilience, Empathic Ability and Interpersonal relationship ability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17(5)*, 95-103.
DOI : 10.5762/KAIS.2016.17.5.95

[22] B. Haley, S. K. Heo, P. Wright, C. Barone & M. Anders. (2017). Effects of Using Advancing Care Excellence for Seniors Simulation Scenario on Nursing Student Empathy: A Randomized Controlled Trial. *Clinical Simulation in Nursing, 13(10)*, 511-519.
DOI : 10.1016/j.ecns.2017.06.003

[23] S. Y. Kim. (2016). The Impact of Self Efficacy and Multi Culture Experience of College Students Majoring Social Welfare on Acceptance of Multi Culture. *The Journal of Multicultural Society 9(2)*, 201-229.

[24] S. H. Kwon, H. K. Son, A. R. Han, Y. J. Kim & G. H. Choi. (2017). The Factors Affecting Cultural Competence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19(2)*, 1069-1081.

[25] S. H. Yoon. (2017). *Developing a Global Citizenship Indicator for University Students*. Doctoral Dissertation.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26] S. S. An, M. S. Min, Y. S. Kim, M. J. Lee & G. M. Kim. (2012). *National multicultural acceptance research*. Seoul :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27] M. H. Davis. (1994). *Empathy*. Madison. MI : Brown and Benchmar.

[28] S. H. Park. (1997). *Empathy*. Seoul : moonumsa.

[29] S. A. Lee. (2018). *A study on the global citizenship and global Saemaul spirit with university students : focused on the differences by major, year, overseas experiences and volunteer activities*. Master's thesis. Yeungnam University, Daegu.

[30] H. Y. Hwang, Y. E. Chyn & J. Hur. (2015). Effects of Multicultural understanding subject on the Empathy and Multicultural Attitude of Nursing Student.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16(1)*, 106-115.
DOI : 10.5762/KAIS.2015.16.1.106

[31] Y. S. Choi, E. Y. Son & S. R. Park. (2018). A Study on the Global Citizenship, Career Identity and Self-Identity in College Students. *The Journal of Career Education Research, 31(2)*, 131-149.

[32] H. J. Shin. (2008). *A Study of Middle School Students Qualifications for GlobalCitizens*. Master's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33] Y. S. Kim (2018). The Relationship between Global Citizenship and Global Health Competence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Wholistic Nursing Science, 11*, 41-49.

[34] J. H. Kim, S. H. Park & S. M. Cho. (2010). What Affects Korean Undergraduates` Global Perspective and Attitude Toward Cultural Diversity?. *Korea Youth Research Association, 17(4)*, 183-210.

[35] E. Y. Jung & J. H. Kong. (2018). Convergence Study on Attitude toward Migrant Wives, Cultural Knowledge and Cultural Nursing Behavior by Nurses.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9(5)*, 281-290.
DOI : 10.15207/JKCS.2018.9.5.281

[36] E. J. Kwon. (2014). *Study on fostering of gloal citizenship utilizing empathy*. Master's thesis.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고 진 희(Jin-Hee Ko) [정회원]

· 2017년 ~ 현재 : 경상대학교 대학원 간호학과(간호학박사 과정)
· 2018년 3월 ~ 현재 : 춘해보건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 관심분야 : 성인간호학, 임상실습
· E-Mail : jinheeko@ch.ac.kr

강 명 주(Myung-Ju Kang) [정회원]

· 2017년 ~ 현재 : 경상대학교 대학원 간호학과(간호학박사 과정)
· 2018년 2월 ~ 현재 : 청암대학교 간호학과 겸임교수
· 관심분야 : 서비스디자인, 간호교육
· E-Mail : qualityupmjk@naver.com

김 혜 진(Hye-Jin Kim) [정회원]

· 2016년 ~ 2019년 8월 : 경상대학교 대학원 간호학과(간호학박사 과정 수료)
· 2019년 3월 ~ 현재 : 경성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 관심분야 : 여성간호, 조산학
· E-Mail : 325khj@hanmail.net